체전 특수 기대 무색… 내국인 감소세 심화

10월 내국인 관광객 99만400명으로 전년 대비 12.9%↓
올 들어 최대 감소폭… 누계도 올 처음 마이너스 전환
국내선 항공 좌석 감소가 주 원인… 외국인은 증가세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10월 내국인 관광객 감소율이 10%를 넘어서며 올 들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전국체육대회가 10월 제주에서 열리면서 관광업계는 내국인 관광객 증가 효과를 기대했지만, 관광객의 발길을 돌려세우지는 못했다. 1~10월 내국인 관광객 누계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올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1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제주를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잠정)은 122만31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134만8200명)보다 9.3% 감소했다. 내국인은 99만400명으로 지난해(113만6600명)보다 12.9% 줄어든 반면, 외국인은 23만2700명으로 지난해(21만1600명)보다 10.0%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은 3월까지만 해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지만, 5월 7.1% 감소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후 6월(-10.2%), 7월(-5.5%), 8월(-2.3%), 9월(-8.1%)에 이어 10월에는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됐다.

이에 따라 10월 말까지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 누계는 948만9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감소했다. 내국인 관광객 누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이 같은 내국인 관광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항공 공급 좌석 감소와 유류할증료 인상에 따른 항공요금 상승이 꼽힌다. 지난 5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0월 기준 편도 2만900원으로, 4월(7700원)보다 크게 올랐다. 11월 발권분부터는 2만5300원으로 추가 인상된다.

제주 국내선 항공 좌석은 올해 3월까지만 해도 1년 전보다 10.5% 증가했다. 하지만 4월 6.8%(16만5678석) 감소로 돌아선 이후 5월 3.3%(8만2688석), 6월 9.1%(22만5415석), 7월 4.5%(11만4747석), 8월 3.4%(9만2170석), 9월 9.7%(25만9000석) 줄어든 점에 비춰보면 항공 좌석 공급 감소로 항공권 확보가 어려워진 점이 내국인 관광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공급 좌석 축소는 지난 3월 말 시작된 하계 운항기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제주~김포 노선의 슬롯(항공기 이착륙 횟수) 12개가 공급 좌석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배분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LCC를 중심으로 고유가를 이유로 비운항편을 늘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와 달리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10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누계는 222만8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 증가했다.

한편 올해 동계 기간(10월 25일~내년 3월 27일) 제주공항의 국내선 운항 편수는 주 2948편으로 지난해 동계 기간보다 3.0%(주 90편) 감소했다. 제주도가 항공 좌석 공급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공급 회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동계 기간 운항 항공편마저 줄면서 관광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지난달 31일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제주도 제공

제주 농촌 정착 돕는 통합 창구 문 열었다

표선면에 종합지원센터 개소… 귀농귀촌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

제주지역 귀농·귀촌 준비부터 정착 이후 사후관리까지 한곳에서 돕는 종합 지원 창구가 지난달 31일 문을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귀농귀촌 희망자부터 정착주민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고 상담하며, 단계별 교육과 농업 기술지도, 실습농장 운영, 농촌 미리 살아보기 등으로 농촌 적응을 돕는다.

정착한 뒤에는 마을 융화사업 등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줄여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귀농귀촌 관련 조사와 홍보, 정책 발굴도 함께 맡는다.

위성곤 지사는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빨라지며 제주 농업·농촌의 기반을 지키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귀농귀촌인 여러분은 지역사회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센터를 중심으로 귀농귀촌인의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돕고, 한 번에 처리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해 행정 비용과 시간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문을 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로또복권 <제1248회>

당첨번호	16, 18, 27, 36, 38, 42
2 등 보너스숫자	22
1 등	6개 숫자 일치
2 등	5개 숫자+보너스숫자일치
3 등	5개 숫자 일치
4 등	4개 숫자 일치
5 등	3개 숫자 일치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금주(11월 2~8일)

"도민·관광객 안전한 발 역할"



▶(주)삼영교통=오는 4일 창립 43주년을 맞는 (주)삼영교통(대표이사 강지윤·사진)은 제주도 내 15개 노선을 책임지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한 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안전운행과 친절 서비스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신뢰받는 운수업체로 거듭나고 있으며, 고객 편의를 위해 차량 고급화와 내부 인테리어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강지윤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객들을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713-7000.

좀처럼 줄지 않는 미분양… 제주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

9월 말 기준 3251호 집계
준공 후 미분양 70%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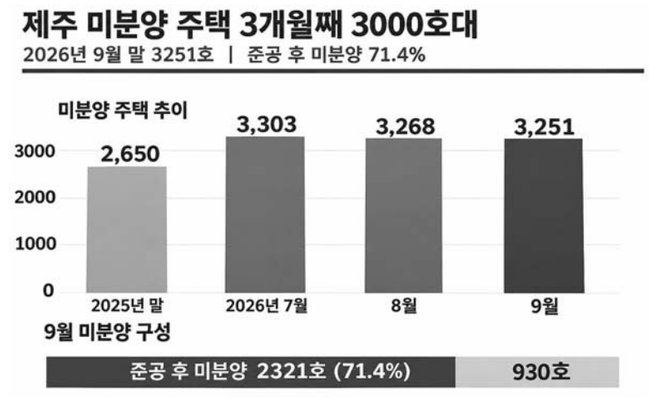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석 달 연속 3000호대를 유지하면서 주택시장 침체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읍·면 지역에 집중돼 있고, 가격도 비싸 구매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층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금융권 대출이 어렵고 대출금리도 인상되면서 침체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3251호로 집계됐다.

지난 7월 3303호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3000호를 넘어선 데 이어 8월 3268호, 9월 3251호로 감소 폭이 미미해 석 달 연속 3000호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7월과 비교하면 9월 미분양 주택은 52호 줄어드는 데 그쳤다. 특히 지난해 말 2650호였던 미분양 주택이 올해 9월 3251호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제주지역 주택시장의 미분양 적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주택이 상당하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9월 말 기준 제주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321호로 전체 미분양의 71.4%를 차지했다. 가장 많았던 올해 7월(2364호)보다 43호 줄어든 수치지만, 미분양 주택 10호 가운데 7호 이상이 이미 준공된 후에도 주인을 못찾은 악성 미분양 주택인 셈이다.

9월 도내 주택매매거래량은 464건으로 집계됐다. 16년 만에 가장 적었던 8월(402건)보다는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각각 9.6%, 22.4% 줄어든 규모다.

문미숙기자



서귀포시정소식

2026 표선해수욕장 모래사장 맨발걷기&음악회 알림
- ○ 행사일시 : 2026. 11. 8.(일) 13:00~17:00
- ○ 행사장소 : 표선해수욕장 모래사장 및 입구 소공원
- ○ 행사주관 : 표선면, 표선면이장협의회
- ○ 행사내용 : 모래사장 맨발걷기(2km코스 자유 걷기), 음악회(지역가수 공연, 버스킹), 무대행사(플리마켓, 페이스페인팅 등)
- ○ 참가신청 : 표선면사무소 방문 및 네이버폼 신청
- ○ 문의사항 : 서귀포시 표선면 (☎ 064-760-4460)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알림
- ○ 신청기간 : ~ 2026. 12. 24.(목)
-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만9~만24세 여성청소년
- ○ 지원내용 : 생리용품 구입 바우처 포인트 지원 (연 168,000원)
-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온·오프라인 통해 구매
-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앱에서 신청
- ○ 문 의 처 :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김정문화회관 기획공연 연극 '여자의 일생' 알림
- ○ 공연일시 : 2026. 11. 14.(토) 15:00
- ○ 공연장소 : 김정문화회관 공연장
- ○ 공연내용 : 배우 최종원의 해설과 함께하는 가요 신파극
- ○ 관 람 료 : 전석 무료 /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 ○ 예 매 처 : 서귀포E티켓
- ○ 공연문의 :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 064-760-3793)

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써니트, 사라향, 설향, 유라, 레몬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써니트 접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홍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7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귤 신품종 분양
2027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궁천, 유라조생, 하례조생, 흥진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 표 : 010-2691-1883

각종감귤묘목 판매
감귤 포트묘 전문 · 무병묘 생산 지정업체
2027년 봄 묘목 분양 예약 접수
민성종묘
제주 서귀포에서 감귤 묘목을 직접 생산·관리합니다.

분양 품종
조생감귤 · 궁천조생 · 하례조생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
만감류 ·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카라향 · 미래향 · 사라향
제주도내 품종 · 우리향 · 달코미 · 맛나봉 · 레드스타
그 외 품종 · 레몬 · 제라몬 · 미니몬 · 하귤 · 당유자 · 금귤 · 문단 · 레드허니포멜로 · 감귤 결실화분묘
검사로 확인한 감귤무병묘
검사기관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사를 통과한 묘목
무병묘 구입비 지원 안내 (신청서류 작성 지원)
1주당 1,500원
감귤무병묘 품종
하례조생 · 천혜향 · 사라향 · 레드향 · 제라몬
포트묘의 장점
높은 활착률로 초기 생육에 유리
뿌리 손상이 적어 식재 스트레스 감소
심는 시기 조절이 비교적 편리
운반과 관리가 편리
품종 갱신 · 신규 과원 조성 · 품종별 구입 · 재배·묘목 선택
예약·상담 문의 민성종묘 010-3694-5423
전국 배송 가능 · 상담 문의 환영
품종 · 수량에 따라 출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입 전 상담해 주세요.